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8. 1. 8.(월) ~ 1. 13.(토)

미 국 (하 와 이)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경기도시 · 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3
□ 연수일정	4
□ 연수자 명단	5
II. 방문국가 개요	6
III. 방문지별 연수결과	7
□ 호놀룰루 시의회	7
□ 문화탐방 주요시찰지	9
○ 오아후 섬	9
○ 빅 아일랜드	14
IV. 연수결과 총평	18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국외 다양한 도시의 우수시책과 주요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져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임.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8. 1. 8.(월) ~ 1. 13.(토), 4박6일
 - ▶ 출국 : 2018. 1. 8.(월) 20:35분 인천출발(KE053)
 - ▶ 입국 : 2018. 1. 13.(토) 17:45분 인천도착(KE054)
- 대상국가 : 미국(하와이)
- 참여인원 : 21명
 - 남부권시군의회의장 의장 6명(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오산)
 - 남부권 협의회 간사 1명(수원시의회 의정팀장)
 - 남부권 협의회 담당자 1명(수원시의회 노우철)
 - 각 시의회 수행원 13명
- 주요 방문지
 - 호놀룰루 시의회
 - 오아후 섬, 빅 아일랜드(세계자연유산 화산국립공원) 등
- 연수과제
 - 의회 주요정책 현황 등 운영제도의 전반적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선진화방안 모색
 - 관광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하와이의 문화탐방을 통한 각종 관광관련 정책, 관광자원 개발 및 편의시설 실태 파악

□ 연수 일정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 간	주요여행일정
제1일 1/8 월	인천 호놀룰루	KE053 전용버스	16:00 20:35 09:25 12:00 13:30 15:30 16:00	•인천국제공항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7시간50분소요) •날짜 변경선 통과 •호놀룰루 도착 •환영레이 증정 후 와이키키로 이동(약30분소요)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중식(씨푸드 뷔페) 후 •호놀룰루 시내관광 - 주 정부청사 전경, 주지사 관저, 아올라니 궁전, 다운타운, 킹 카메하메하대왕 동상 등 •호텔 체크인 인 휴식 •한식으로 석식 •호텔(HYATT REGENCY (ROH)투숙 및 휴식
제2일 1/9 화	호놀룰루	전용버스	08:00 09:00 12:00 13:30 16:00 18:00	•호텔 조식 •전일 오후 섬 일주 관광 - 다이아몬드헤드 전망대, 카할라 고급 주택가 - 한국지도마을 전망대, 블로우 홀, 마카푸 포인트 등 - 폴리네시안 민속촌 입장 후 중식(PCC뷔페) - 빌리지 투어 - 선셋비치 파인애플 농장 등 •중식당에서 석식(랍스터킹) •호텔(HYATT REGENCY (ROH)투숙 및 휴식
제3일 1/10 수	호놀룰루	전용버스	08:00 18:00	•호텔 조식 •공식 방문 - 호놀룰루 시 의회 방문 - 담당자 미팅 및 브리핑/ 시설견학 •호텔로 귀환 후 자유시간 •석식(한식) •호텔(HYATT REGENCY (ROH)투숙 및 휴식
제4일 1/11 목	호놀룰루	전용버스 HA 122 HA 131	05:30 07:57 08:50 09:30 17:15 18:10 19:00	•호텔 조식(혹은 한식-해장국) 후 주내공항으로 이동 •주내공항 출발 (50분소요) (08:34 출발 변경 시) •빅아일랜드 힐로 공항 도착 (09:20 도착) •빅 아일랜드 일정: 하와이의 웅장한 천연 화산섬 인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살아 움직이는 분화구와 화산 국립공원, 아카카 폭포 등 관광 •빅아일랜드 힐로공항 출발 •주내 공항 도착 •석식 •호텔(HYATT REGENCY (ROH)투숙 및 휴식
제5일 1/12 금	호놀룰루	전용버스 KE 054	07:00 08:00 11:45	•호텔 조식 •호텔 체크-아웃 후 공항 으로 이동 •호놀룰루 공항 출발 (10시간50분 소요)
제6일 1/13 토	인천		17: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연수자 명단

소속의회	사 진	소속의회	사 진
성 명		성 명	
수원시의회 (협의회장)		용인시의회	
김 진 관		김 중 식	
화성시의회 (부회장)		안성시의회	
김 정 주		권 혁 진	
평택시의회 (감사)		오산시의회	
김 윤 태		손 정 환	

□ 수행원 명단

소속의회	성 명	성 명	성 명
수원시의회	서 원 범(간사)	김 은 정(비서팀장)	노 우 철(담당)
화성시의회	조 윤 호(의정팀장)	안미진(입법홍보팀장)	홍 경 표
평택시의회	서 연 미	장 안 선	
용인시의회	전 학 표(전문위원)	서 혁 준	
안성시의회	정 상 진(전문위원)	이 광 경	이 정 아
오산시의회	김 병 주(의정팀장)	오 건 택	



방문지 개요

 미국(하와이)	위 치	북태평양 상
	경위도	서경 157° 47' 47", 북위 21° 18' 41"
	면 적	28,311km ²
	시간대	UTC-10
	행정구분	5카운티(county)
	꽃	하이비스커스(Chinese hibiscus)
	나무	쿠쿠이나무(Candlenut Tree)
	새	하와이기러기(nene)
	주도	호놀룰루(Honolulu)
	인 구	1,404,054





방문지별 연수결과

① 호놀룰루 시의회 방문

○ 방문일시 : 2018. 1. 8. 11:00 ~ 12:00

○ 장 소 : 호놀룰루 시의회 본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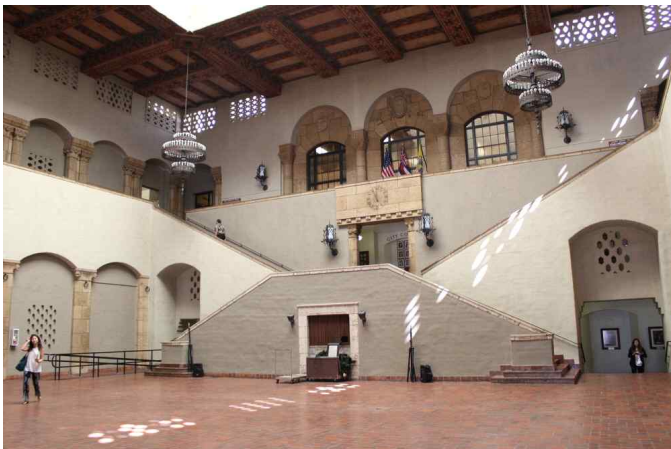
○ 인 원 : 25명

- 경기도 남부권 시군의회의장 및 수행단 21명
-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 4명

○ 주요내용

-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 및 남부권협의회회장 인사말씀
-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 및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방문단 소개
- 호놀룰루 시의회 소개
- 기념품 교환
-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 호놀룰루 시의회 주요 정책
 - 호놀룰루 시의회 관광산업과 관련 정책, 자연환경 보존 방법 등
 - 호놀룰루 시의회 예산 및 주(主)사용처
 - 호놀룰루 시의회 운영 관련(임기, 연임 등)
 - 호놀룰루 시의회 회기 운영
 - 호놀룰루 시의회 구성
 - 호놀룰루 시의회와 한국 시의회와의 비교
- 호놀룰루 시의회 시설 견학 등

□ 호놀룰루 시의회 방문 사진



호놀룰루 시의회 내부 전경



호놀룰루 시의회 외부 전경



호놀룰루 시의원과 간담회



호놀룰루 시의회 시설 견학



호놀룰루 시의원과 기념사진



호놀룰루 시의원과 기념사진

② 오아후 섬

“만남의 장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오아후는 그 이름처럼 활기찬 곳이다. 하와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하와이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와이 원주민의 가치와 전통을 기반으로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곳이다. 오아후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과거와 현재의 근본적인 대비이다

카일루아 비치의 맑고 푸른 바닷물이 호놀룰루의 대도시 풍경과 어우러진다. 이올라니 궁전의 역사적 건축물이 진주만의 영원한 기념비와 만난다. 또 대도시 와이키키가 노스 쇼어의 작은 타운 할레이와로 이어진다. 유명한 레아히(다이아몬드 헤드) 정상으로 하이킹을 하든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든, 누구나 오아후에서 다양하게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 오아후 역사

오아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와이 왕국부터 진주만 공습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되새겨 볼 수 있다. 1795년에 카메하메하 1세는 군대를 이끌고 경치 좋은 누우아누 팔리 전망대의 가파른 절벽 부근에서 전설적인 누우아누 팔리 전투를 벌였다. 처절했던 전투의 결과로 오아후는 정복되었고, 마침내 1810년에 하와이 군도가 통일되었다.

카메하메하 대왕 이후에 일곱 명의 하와이 군주가 그 뒤를 이었다. 카메하메하 3세(카우이케아오울리)는 오아후에 하와이 왕국을 수립했다. 카메하메하 4세(알렉산더 리홀리호)와 엠마 왕비의 여름 휴양지였던 쿤 엠마 여름 궁전은 호놀룰루의 누우아누 벨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방문할 수 있다. 메리 모나크(즐거운 군주)로도 알려진 칼라카우아 왕은 다운타운 호놀룰루에 웅장한 이올라니 궁전을 지었다. 릴리우오칼라니 여왕은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1893년에 논란이 많은 정변을 일으켜 하와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난 후 하와이를 통치한 마지막 군주였다. 1898년에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로 흡수되었다.

1800년대는 하와이의 격변기였다. 카메하메하 2세(리홀리호)가 전통 카푸(금기) 제도를 종식시킨 후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하와이 왕과 알리이(왕족)의 예배당이었던 호놀룰루 시내의 카와이아하오 교회를 비롯해 오아호에 있는 유서 깊은 많은 교회는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을 일깨워 준다. 곧이어 고래잡이, 설탕, 파인애플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고, 이는 서양 이주자들을 유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9세기 말부터 농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은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푸에르토리코, 포르투갈, 러시아, 필리핀에서 온 이주민들이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민자들의 다양한 인종이 섞인 덕분에 오늘날 하와이가 다문화 환경을 이루게 된 셈이다. 와이파후 플랜테이션 빌리지에 가면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 시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유서 깊은 할레이와 타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옛 와이알루아 설탕공장의 굴뚝을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에 이르러 농경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대신에 하와이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1901년 와이키키 해변에 모아나 호텔이 문을 열었다. 현재 웨스틴 모아나 서프라이더가 하와이에서 제일 오래된 리조트로 여전히 성업 중이다. 할레쿨라니 호텔은 1917년에 휴양지로 문을 열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 고급 호텔로 재건축되었다. 알로하 타워는 1926년에 개장한 이래 40년 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1927년에는 “핑크 궁전”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로얄 하와이 호텔이 문을 열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해군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공습의 주목표는 미해군의 태평양 함대와 육군항공 방어부대, 그리고 해병대 항공부대였다. 공습으로 인해 미군함 12척과 항공기 188대가 파괴되고, 미군 2,403명과 민간인 68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었다. 1969년에 완공된 하와이 주청사는 다운타운 호놀룰루의 이올라니 궁전 뒤에 자리잡고 있다.

하와이에서 제일 큰 비숍 박물관에서부터 진주만 사적지에 이르기까지 하와이의 화려한 과거를 보여주는 수많은 명물과 명소가 오아후에 모여 있다.

○ 하와이 카이&지도 마을(Hawaii Kai & Marina Ridge)

하와이 카이는 고급 주택가이면서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바다와 가까운 이 아름다운 부촌에는 탐스러운 야자수가 가득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분위가 풍긴다. 해양 스포츠 관련된 숭이 많고 강습 프로그램도 있어 하나우마 베이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맞은편 언덕에 위치한 지도 마을은 한반도 지도와 생김새가 흡사해 한국인 여행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곳이다.



한국지도마을



하와이 카이



하와이 카이



하와이 카이

○ 이올라니 궁전&카메하메하 대왕상(Iolani Palace & King Kamehameha' s Statue)

하와이 왕조의 칼라카우아(Kalakaua) 왕이 1882년에 건설한 궁전이다. 1893년 최후의 여왕 릴리우오칼라니(Liliuokalani)가 퇴위할 때까지 살았다. 빅토리아 피렌체 건축양식을 따른 궁전으로 미국 내에 있는 유일한 근대 역사적 건축물이다. '이올라니'란 '신성한 새'라는 뜻이며 하와이에서는 신성시되는 이름이다. 현재 궁전 내부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당시에 사용하던 가구와 침구류, 주방 등과 그외 전화, 전기 등 설비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많은 방들은 제각각의 특색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하와이를 최초로 통일시킨 카메하메하 왕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올라니 궁전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동상은 금빛 케이프를 걸치고 왼손에 평화의 상징인 창을 들고 있다. 카메하메하는 하와이어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매년 6월 11일은 대왕의 탄생 기념일로, 킹 스트리트에서 화려한 퍼레이드가 개최되며 동상에는 색색의 레이가 장식되기도 한다.



이올라니 궁전



이올라니 궁전



카메하메하 대왕상



카메하메하 대왕상

○ 폴리네시아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al Center)

폴리네시아 부족인 하와이, 타히티, 사모아, 피지, 뉴질랜드(아테아로아), 마르케사스, 통가 등의 7개 마을에서 문화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테마파크이다. 몰몬 교회에서 운영하고 BYU 대학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문화 센터이다.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는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에서 나눠 주는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면서 폴리네시아의 생활 양식, 놀이, 춤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통 악기 연주를 직접 해 볼 수도 있고 훌라나 전통 놀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반나절쯤은 투자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다. 또한 매일 오후 2시 30분~3시에 메인 연못에서 열리는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쇼’는 7개의 부족이 모두 나와 전통 춤과 쇼를 선사하는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화려하고 멋있다. 저녁에는 하와이 전통 정찬인 ‘루아우’와 웅장한 디너 공연인 ‘Ha’를 엮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③ 빅 아일랜드

섬이라기보다 대륙 같은 인상을 주는 하와이섬은 '빅아일랜드'란 별명 그대로 8개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며, 다른 7개 섬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넓다. 섬 중앙에는 남북으로 해발고도 4,260m의 마우나케아산과, 4,170m의 마우나로아산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 있으며, 마우나케아산의 산자락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파커 목장이 푸르게 펼쳐져 웅장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지질학적으로도 하와이 제도 중 가장 젊은 섬이다. 현재도 킬라우에아산의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분화로 인한 지형 변화와 지형의 특징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동쪽은 강우량이 충분하여 열대식물이 우거지고 또 재배도 활발하다. 반면에 서쪽은 건조한 기후에 강한 햇빛과 비교적 온화한 바다가 어우러져 해양 스포츠의 중심이 되는 휴양지가 개발되어 있다. 코나(Kona) 앞바다는 대어를 낚으려는 낚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 화산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미국 하와이주의 하와이섬 남동부에 있는 화산 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이다. 킬라우에아산(Kilauea Mt.)과 마우나로아산(Mauna Loa Mt.)이 활발하게 화산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서 1916년 마우이섬(Maui Island)의 일부 지역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61년 마우이섬의 공원 지역이 할레아칼라국립공원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 할레아칼라국립공원과 함께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보전지역(Man and Biosphere Reserve)'으로 설정된 뒤 1983년 하나로 통합되어 '하와이섬 생물권보전지역(Hawaiian Islands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유산으로서 198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문화유산의 지정 면적은 8만 7940ha으로 마우나로아산의 정상

과 남동쪽 사면, 그리고 킬라우에아산의 남서쪽과 남쪽 및 남동쪽을 아우른다. 마우나로아산(4169m)은 하와이어로 '긴 산'이라는 뜻으로, 방패를 얹어놓은 것처럼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순상화산(楯狀火山)이다. 이 화산은 70만~100만 년 전에 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분화는 1984년 3~4월에 발생하였다. 이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하와이섬 절반이 넘는 면적을 덮고 있다. 정상인 모쿠아웨오웨오(Moku'āweoweo) 칼데라는 지름 3~5km, 깊이 150~180m, 면적 약 10km²인데, 열대에 속하면서도 겨울에는 정상부가 자주 눈에 덮이는 것이 특징이다.

킬라우에아산(1243m)은 하와이어로 '넓게 퍼진 산'이라는 뜻이며, 역시 순상화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으로, 분화구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른다. 정상인 칼데라는 길이 5km, 너비 3km, 면적 10km²이며, 칼데라 안에 여러 개의 분화구가 있다. 그중 가장 큰 할레마우마우(Halemaumau) 분화구는 하와이 전설에서 '불의 여신' 펠레가 태어난 곳으로, 해마다 측면 분화를 일으켜 분출된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굳어져서 육지의 일부를 이룸으로써 섬의 면적이 확대된다. 본격적인 등반 장비와 가이드가 없으면 오를 수 없는 마우나로아산과 달리 이 화산은 자주 분화하지만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는 헬리콥터 유람, 칼데라 가장자리를 자동차를 타고 도는 17km 길이의 순환도로,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이 일대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열대습윤기후에서 고산사막기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생태계도 아고산대(subalpine), 계절에 따른 산간지대(montane seasona), 산간우림(montane rainforest), 계절에 따른 아고산대(submontane seasona), 해안저지대(coastal lowlands)의 5가지로 나뉘어 다양한 식생 형태를 보이며, 커다란 양치류가 자라는 숲을 비롯하여 희귀 조류와 고유종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원주민 마을과 사원, 무덤, 카누 정착장, 암면 조각, 피난처 동굴, 경작지 등 고고학적 유적지도 풍부하며, 화산활동을 통하여 공원의 경관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화산국립공원



화산국립공원



화산국립공원



화산국립공원

○ 아카카 폭포(Akaka Falls)

하와이섬 북동쪽 하마쿠아(Hamakua) 해안의 콜레콜레천(Kolekole Stream)에 있으며 아카카폭포주립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직하형(直下形) 폭포로 높이는 135m, 평균너비는 8m이다. 힐로에서 북쪽으로 23km 떨어져 있다. ‘아카카’는 하와이어(語)로 ‘찢어지다’ ‘갈라지다’ ‘나뉘지다’라는 뜻이다.

폭포 위쪽 상류 가운데에 매우 큰 돌이 있는데, 이 지역 민요에서는 ‘포하쿠 아 펠레(Pōhaku a Pele)’ 또는 ‘포하쿠 오 칼로아(Pōhaku o Kāloa)’라고 부른다. 같은 공원 안에 높이 127m의 카후나폭포(Kahuna Falls)가 있으며, 두 폭포를 연결하는 6km의 하이킹 코스는 야생난, 관엽식물, 열대식물,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카카 폭포	아카카 폭포
	
아카카 폭포	아카카 폭포

IV 연수결과 총평

- 4박6일간의 연수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한 하와이의 발전된 관광산업에 대하여 현지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 하와이의 관광산업은 해마다 활발해지고 있다. 최대의 관광지는 호놀룰루인데, 연중 따뜻한 기후에 와이키키 해변을 중심으로 부근 일대에 펠하버·다이아몬드헤드·비숍박물관 등 각양각색의 관광자원이 있다. 하와이섬에는 하와이화산국립공원(마우나로아·킬라우에아 화산 등), 마

우이섬에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이 있고 그밖에 카우아이섬의 와이메아캐니언 등 아름다운 산악경관이 풍부하다. 또한 모래해안·절벽해안 및 앞바다의 산호초 등 아름다운 해안경관도 많다. 하와이의 관광은 자연미뿐만 아니라 폴리네시아계(系) 원주민의 풍속이나 예술(홀라춤과 조각)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이 보여주는 풍물의 다양성에도 크게 힘입고 있다. 카메하메아왕조와 최초의 백인 탐험가인 쿡 선장에 관련된 사적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 빅 아일랜드에 있는 화산국립공원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유산으로서 198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산국립공원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제주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다. 제주도 역시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으로서 따뜻한 기온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행하여야 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발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우리 협의회는 호놀룰루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제도 및 문화의 차이, 정책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호놀룰루 시의회의 노력들을 살펴보며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